

글. 김재원(작가)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강사
- 팟캐스트 '역사공작단' 패널

민주주의가 완성된 1987 6월의 어느 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참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독재정권에 맞선 때가 있었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의 끝 무렵,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완성되던 바로 그때,
1987년 6월 언저리로 거슬러 가보자.



출처 : 6월항쟁 사진집
「80년 5월에서 87년 6월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개헌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게 된다.
민주화의 불길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핏빛 위에 집권한 신군부

1979년 10월 26일 유신의 심장이 멎었던 그때, 신군부 세력은 총과 칼을 이용해 재빠르게 대한민국을 장악한다. 신군부 세력은 분위기 쇠신 차원에서 사회적 통제를 조금씩 완화했다. 이른바 '유화조치'다. 1982년에는 야간통행 금지 제도를 폐지했고, 이듬해에는 학생들의 교복과 두발을 자유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대중의 관심을 정치에서 대중문화로 돌리기 위한 '3S(영상 Screen, 스포츠 Sports, 성문화 Sex)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유화조치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개최와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최고 호황이라 불릴 정도로 경제 황금기를 맞았다. 신군부 세력이 취했던 유화조치는 사회 분위기를 일부 이완시켰으나 그것은 허울뿐이었다. 신군부 세력에 반대하는 정치세력과 재야운동은 강력한 탄압을 받아야 했고, 학생운동 세력도 폭력적인 탄압을 견뎌야 했다.

신군부 세력이 만들어낸 '일말의 자유'를 맞본 시민들은 더 큰 자유를 원했다. 대통령조차 직접 뽑지 못하는 1980년대 정치 시스템은

너무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정치권이 나섰다. 1985년 총선 과정에서 신한민주당(이하 신민당)과 재야세력이 당시 대통령 전두환의 정통성과 비민주성을 비판하며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쉽게 받아들일 신군부 세력이 아니었다.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헌을 유보하며 사실상 개헌 요구를 묵살해 버린 것이다. 이에 신민당 중심의 야당 정치인들은 개헌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게 된다. 민주화의 불길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시민의 힘으로 '제6공화국'을 열다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지면서, 여야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하지만 신군부 세력은 이를 저지하고자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고 용공조작 사건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기에 이른다. 그러던 중 1987년 1월 서울대 학생 박종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과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종철 사망 사건으로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운동은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신군부 세력은 시국이 혼란하다는 핑계를 대며 '4·13 호헌조치'를 선언한다. 모든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현행 헌법을 유지하는 가운데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다는 내용이다.

그해 5월, 시민들은 호헌철폐와 대통령 직선제를 목표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했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공식적으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6월 항쟁 사진
한겨레21 제1166호
「촛불을 만든 6월의 기억」

꺼
지
지
않
는
불
꽃

조작·은폐 사실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여세를 몰아 국민운동본부는 '박종철 군 고문 살인·은폐 조작 규탄 및 민주 헌법 쟁취 범국민 대회'를 1987년 6월 10일로 잡는다. 운명의 디데이 하루 전날(6월 9일), 연세대 학생 이한열이 '연세인 결의대회'에서 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피 흘리며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6월 10일로 예정된 범국민 대회에 폭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6·10 민주항쟁'의 서막이었다. 시위는 거의 전국 모든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야간시위와 철야농성으로도 이어졌다. 뜨거웠던 민주화 투쟁의 열기는 마침내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조치를 약속하는 '6·29 선언'을 이끌어냈다. '6.29 선언'은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권한 통제, 국민 기본권이 강화된 현행 헌법 공포로 이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6월의 어느 날 시작된 시민들의 치열한 투쟁과 피, 땀은 지금의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었다.